

## 2023년 한 해 24곳의 문화도시에서 253만 명 문화향유

-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 뽑혀
- ’23년 문화도시 24곳에서 문화공간 3,658곳 발굴·활용, ▲지역문화 기반 조성, ▲지역 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 선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를 점검한 결과 문화도시 24곳에서 253만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문체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한 최우수 도시로 청주시, 서귀포시, 영도구, 춘천시 등 4곳을,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시장 이범석)를 선정했다.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 매해 최우수 도시 중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선정하는 제도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고, ’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의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1년간의 상담과 예비사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 제1~4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

제1차 문화도시	▲ 부천시, ▲ 서귀포시, ▲ 영도구, ▲ 원주시, ▲ 천안시, ▲ 청주시, ▲ 포항시
제2차 문화도시	▲ 강릉시, ▲ 김해시, ▲ 부평구, ▲ 완주군, ▲ 춘천시
제3차 문화도시	▲ 공주시, ▲ 목포시, ▲ 밀양시, ▲ 수원시, ▲ 영등포구 ▲ 익산시
제4차 문화도시	▲ 고창군, ▲ 달성군, ▲ 영월군, ▲ 울산광역시, ▲ 의정부시, ▲ 칠곡군

문체부는 2023년에 문화도시 24곳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 지역문화 여건 개선, ▲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을 뒷받침해왔다.

### 올해의 문화도시는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는 다수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현재의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으며, 기록유산 분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23. 11. 1. 개관)했다. 청주시기록관도 설립해 청주의 기록문화에 대한 근현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기록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문화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기록문화 연계 산업을 창출한다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 동네기록관 운영, ▲ 시민기록관 조성, ▲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 문화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 기록문화 신(新)경제 효과 창출 등을 핵심과제로, 2023년에는 기록문화 복합공간인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 조성해 총 21곳으로 확대하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철당간점) 개장 등으로 청주시 면적 70%에서 15분 이내 문화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문화주간은 공연-시장-전시를 엮은 종합축제로 성장해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청주시는 공공미술사업으로 지역예술가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청년문화창작소와 청년문화상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청주시를 포함한 전체 문화도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누구나 문화도시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

24개 문화도시는 곳곳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3,658곳('22년 3,407곳)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방문객 253만 명('22년 250만 명)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 춘천시는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했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접근이 부족한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한층 개선했다.

▲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읍면동 문화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 누림을 확대했다. 동네문화공간에는 서귀포시민 48% (8만 8천여 명)가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이 대폭 강화됐다.

###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도시 발전 이끌어

문화도시는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만의 ‘도시브랜딩’을 창출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 익산시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보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보물찾기 축제를 브랜드화했다. 축제기간 동안 2만 2천여 명이 방문하고 보석업체 매출액은 약 12억 원(1,200% 매출 증대)을 기록해 침체했던 보석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문화도시가 창출한 문화상품, 디자인, 브랜드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심축이 되고 있다.

▲ 밀양시는 (구)밀양대학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햇살문화캠퍼스로 조성하고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는 ‘햇살문화도시대학 프로그램’과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햇살팝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 공주시는 화랑(갤러리)이 밀집된 원도심을 ‘공주그림 상점로’로 특화(현재, 7개 갤러리 유치)해 신진미술인들이 공주에서 그림을 전시·판매하고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신

문화도시 24곳 중 인구감소지역은 영도구, 영월군, 밀양시, 공주시, 고창군 등 5곳으로, 모든 도시가 '20년 이후 예비도시 사업과 본도시 사업을 거치면서 지역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특화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방문객을 증대했다. ▲ 부산 영도구는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 영월군은 영월읍에 편중되어있는 문화공간을 영월 구석구석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문화충전소\*\*’라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 '22년 대비, 영도구 8%, 영월군 4%, 밀양시 5%, 공주시 6%, 고창군 5% 증가

\*\* 공간 주인장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문화프로그램. 푸른돌사회적협동조합은 산솔면 주민센터를 활용해 작가, 화가들과 주민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20여 개 조성

## '24년 연말, 도시 간 연계·협력 중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예정

문체부는 올해 1~4차 문화도시 24곳에 총 36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간 연계·협력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연말에 지정해 내년부터 3년간(2025~2027년) 최대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 한 해 매달 문화도시와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을 살필 예정”이라며 “각 도시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시 발표 자료

담당 부서	지역문화정책관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허권 (044-203-260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